



[하은 교회 단기 선교팀: 우유니 소금 사막 땅 밟기]

금식 성회 (2월 19일 - 21일) 및

코이노스 영생 장로교회 (2월 8일 - 16일)와 뉴욕 하은 교회 (2월 26일 - 3월 7일) 단기 선교



배경: 물이 덮혀있는 소금 사막

카니발 기간을 지나는 미국 동부 워싱턴과 뉴욕 지역에 있는 두 교회에서 귀한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 사이 현지 교회에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어진 금식,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참석해 온 성도들이 교회에 합숙하며 은혜받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요즘은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들에 대한 좋은 소문과 영향력으로 인해 새로운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띠꼬요 교회에 이어 나비 교회가 속해있는 빈또찌꼬 지역 사회는 정식으로 교회에 유치원 개원을 요청했으며 이로 인해 15명의 학생으로 개원하며 기독교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비 교회 주일 예배 인원도 청년들을 포함한 숫자이지만 4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강박한 지역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을 맞아 8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코이노스 영생 장로교회 방문 팀은 현재 볼리비아 파송 예정인 조준석 집사님의 사역 준비와 현지 파악을 위해 많은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오재호 집사님께서 현재 컴퓨터 시스템 점검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뉴욕 하은 교회의 경우 교회 원격 경보 장비를 설치해 주셔서 지금 귀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띠꼬요 교회 예배당 이전을 위한 대형 컴프레서를 Ark Mission에서 보내주셔서 어려운 공사를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현지에서 사역

마지막 밤, 또로 또로 지역에서 가진 시간을 통해 제가 많은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현지 방문 기간 동안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져주심과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 루야!





안데스의 눈물

윤 영범

하은 교회 2012 단기 선교사

은빛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안데스는 길게 누워 울고 있었다.
검푸른 속살의 그림자로
바람이 불어댈적 마다
두근 두근 산맥의 장엄한 맥박 소리가 들려오고
안데스의 사람들은 그 소리가
어머니의 숨소리라 믿고 있었다.

용서를 얻지못해 괴로워하는
들새들의 초조한 울음 소리와,
열매를 맺지못해 슬퍼하는
나무들의 헐벗은 흔들림을
안데스는 그윽한 가슴을 열어 듣는다.

산허리를 두른 푸른 별빛이
마을 사람들의 부끄러운 죄들을
밝혀주는 밤.
안데스가 허리를 뒤척여
잉태한 안데스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람을 낳고,
떠나 보내고,
또 그리워 한다.

눈물에 젖은
안데스의 가슴속에서
난 온몸을 기울여
어머니의 맑고 싱싱한 맥박소리를
듣는다.

기도 제목:



1. 올 해 (4월 말-5월 초) 가을을 맞으며 추수 감사 주일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성도들에게 생소한 교회 절기가 되겠지만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

도록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교회 성장을 위한 위원회 모임이 매주 토요일 3월 한 달 동안 있습니다. 지혜와 믿음으로 잘 준비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 성령 충만함과 전도의 열기가 더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 작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